

# 석유 조기경보지수 “불감증 심각”

2008년 1월 0.01p 하락 3.60으로 경계 ... 50-60달러대에도 동일등급

국제유가 급등이 시작됐던 지난 2005년 도입된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EWS)가 <경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석유부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보지수가 국내 주도입 유종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대이던 2-3년 전이나 배럴당 90달러선을 넘나드는 현재나 평가등급과 지수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월1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석유부문 EWS는 3.60으로 전월보다 0.01p 하락하며 <경계> 등급을 유지했다.

석유공사는 전월보다 1월의 EWS가 내린 데 대해 “미국의 장기이자율 하락 등 EWS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Dubai유가 배럴당 88.35달러에서 85.76달러로 내리고 미국의 원유재고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생산능력 증가 등 하락요인으로 인해 지수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수가 2.5-3.5미만이면 <주의>, 3.5-4.5미만이면 <경계>, 4.5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되나 특이하게도 지수는 Dubai유가 과거 배럴당 50-60달러대이던 시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EWS는 과거 2005년 8-10월 3.5-3.6대에서 움직이며 <경계> 단계에 올라선 바 있고 이후 2006년 1-8월,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2007년 10월 3.67을 고점으로 하락추세이다.

등급과 지수가 같은 수준이지만 Dubai유 가격을 월 평균치로 비교해보면 2005년 8-10월은 배럴당 53-56달러대, 2006년 1-8월은 57-69달러대였다. 더구나 2007년부터는 4월 63.98달러를 시작으로 급등세를 거듭해 1월에는 87달러선을 넘었고 일별로는 90달러를 넘는 날까지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지수는 유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잉여생산능력, 미국의 원유재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와 미국의 금리 등 모두 22개 변수의 움직임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되지만 정작 핵심변수인 유가가 최고 70% 가까운 상승폭(월 평균기준)을 기록해도 지수는 오히려 낮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Dubai유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나들면서 유류세 인하, 석유제품 할당관세 적용, 원유 자주개발 확대 등 정치권과 정부, 업계 모두 경제에의 파장을 우려하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석유부문 EWS가 전반적인 대외경제변수의 종합정보로서는 역할을 할 지 몰라도 석유부문 정보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수운용을 맡고 있는 석유공사는 “원유 수급에 미치는 많은 변수를 감안해야 하고 유가 상승과정에서의 학습효과도 고려되기 때문이다”며 “공사는 연구 용역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갖고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 모델의 문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9>